

청량교회 어와나 서기교사 김관규 집사

저는 청량교회 어와나에서 서기를 맞고 있는 김관규 집사입니다. 청량교회에서 어와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사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해가 갈수록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학교 또한 예년과 비교해 학생 수가 급감하여 교사들은 전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와나 프로그램을 알게되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와나 클럽을 운영하면서 학원과 학교에서 공부로 온 몸이 녹초가 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과 함께 각종 게임을 통해 규율을 지키는 법, 그리고 재미있게 함께 어울리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Awana Leader

그 동안 토요일 오후에 운영되었던 어와나가 주일오후로 시간대를 옮기면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와나가 대부분의 유, 초등부 아이들에게 개방되어 주일 오후에는 교회가 온통 아이들의 함성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도 그 시간동안 마음 놓고 교회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서 인근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와 어와나 활동으로 몸은 비록 지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아이들에게 긍정적 사고와 도전을 가르친다는 자부심에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의 마음은 늘 감사로 가득차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에서 어와나 클럽 활동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고, 게임을 하며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과 핸드북시간에 진지하게 임하는 아이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청량교회의 어와나는 유,초등부의 미래만이 아닌 청량교회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Deacon Kwankyu Kim, Awana Secretary, Chungryang Church

I am a deacon Kwankyu Kim at Chungryang Church and am also a secretary in Awana club. I have served as an Awana teacher since Awana club was established in Chungryang Church. Recent years, the number of new enrolled elementary students has been decreased.

Under the influence of this, the number of church school students has also been sharply decreased compared to last year. So, many leaders were paying more attention to mis—sion works. While doing this, we met Awana program and started it in our church. We were really glad that we could teach children, who were burned and stressed out from school studying, regarding how to abide the rules through in—troducing variety games and bible and also how to joyfully harmonize with the others.

As Awana club moved from Saturday afternoon to Sunday afternoon, it became a significant reason for motivating more children to participate in. Sunday afternoon in Chungryang

Church became full of roar of children because Awana was opened for most of all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pupils. This went for the effect of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in that their parents became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ir church activities with no worries about children.

Furthermore, good reputation about Chungryang Awana has been spread in school so that many children, even one who is attending other churches, are asking about Awana.

As time goes, we feel the significance on the activities of Awana by looking at how children have changed. Looking at their happily smiled face during the game and grave looks during handbook period make us resolve to teach them harder with all our heart. Awana in Chunryang Church becomes not only the future of the youth, but also of Chungyang Church.

Awana 영작: 허인경 기자